

호르무즈 한국군 파병 반대한다!

미국·이스라엘의 전쟁 지원 말라!

다수 언론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준비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정부는 여전히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트럼프의 이란 전쟁 협조 요청에 응해 “군사적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해 왔다. 실제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기여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고, 사실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전투 참여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수색에 관여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은 파병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는 뜻이 아니다. 정부는 파병을 포함해 트럼프의 전쟁에 군사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전투”와 “비전투” 파병을 구분하는 것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비전투’ 지원으로 거론되는 군수지원함과 해상초계기도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병력이 직접 교전에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과 무관한 것

이 아니다. ‘비전투 병력’ 파병이 전투병 파병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원할 때 ‘비전투 병력’ 파병 후 그 병력을 지키기 위해 전투병을 파병했다.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무엇을 낳는지 이미 가자지구에서 똑똑히 보았다

미국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지난 3년간 가자지구를 파괴하고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이고 내쫓았다. 올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3000명이 넘는 이란인들이 목숨을 잃고 전쟁의 포화가 중동 곳곳으로 번졌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특히 남부 레바논에도 공격을 퍼부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을 파괴했다.

그동안 트럼프는 이란 전쟁에 동맹국들도 협조하라고 압박해 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를 공격해 어린이 120명을 살해했다. 이란의 핵시설을



1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비롯한 군사시설을 폭격해 더 큰 재앙을 낳을 뿐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통제해 중동만이 아니라 전 세계 유가와 생계비를 폭등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군을 보내는 것은 단순한 ‘항행 지원’이 아니라 미국·이스라엘의 전쟁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더구나 포화가 완전히 멈춘 것도 아니다. 불과 며칠 전 미국이 이란을 다시 폭격하고 이란이 반격하는 등 군사적 충돌이 다시 벌어졌다. 언제 더 큰 전쟁으로 번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다. 이런 때 한국군을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는 것은 긴장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한 발 더 깊숙이 발을 들이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파병이 “역내 안정”과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를 전쟁터로 만든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었다. 여기에 한국군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역내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인가. 파병되는 평범한 청년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전쟁 확대의 대가를 평범한 사람들이 치르게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국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참상을 보며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보아 왔다. 한국 정부가 그 전쟁에 군사적 지원자로 나서서는 안 된다.

호르무즈 한국군 파병 반대한다!
미국·이스라엘의 전쟁 지원 말라!

2026년 9월 4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Statement]

NO S. Korean Troops to Hormuz!
NO Support for US & Israel's Wars!

English & Arabic ▶



오는 9월 19일(토) 오후 3시 ‘가자 인종학살 3년 — 팔레스타인 연대 포럼’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고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연대를 행동으로 만들어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9월 19일 팔레스타인 연대 포럼에 함께합니다.

**가자 인종학살 3년
팔레스타인 연대 포럼**

9월 19일(토) 오후 3시
서울 노무현시민센터 B2 다목적홀

(한국역 3번 출구 도보 10분) ※ 해와 연사 온라인 발표 ※ 시간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15:00~16:50
시온주의, 기원부터 현재까지
도니 글렉스틴 유대계 영국인 역사학자, 반전·반파시즘 활동가

17:10~19:40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와 행동
람시스 킬라니 팔레스타인계 독일인 활동가
요르고스 고고스 그리스 피레우스항만공사 항만노동자노조 위원장
기와 단다시 재한 레바논인, 경성대학교 교수
조수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교사들’ 공동운영진

참가비: 20,000원 [대학생·난민: 13,000원] 한국어·영어·아랍어 통역 제공
문의: 010-2846-1948 / people.freepalestine@gmail.com

10-11 **가자 학살 3년**
국제 공동 행동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이스라엘은 인종학살 멈춰라!
트럼프·네타냐후의 전쟁 반대한다!

10월 11일(일) 오후 2시
서울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

(한국역 1번 출구)
※ 집회 후 미국 대사관,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행진

광화문
한국역 1번 출구
한국총사거리
인사동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웹사이트 ▶



보내 주신 후원금은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에 사용됩니다.